

# 최행귀의 한역시 연구

조연숙\*

## 〈차례〉

- I. 머리말
- II. 「원왕가」와의 대비를 통해 본 한역시
  - 1. 창작 동기와 목적
  - 2. 작품 구조
  - 3. 내용 진술 양상
  - 4. 표현 방식
- III. 맺음말

## I. 머리말

『균여전』의 「第七 歌行化世分者」에는 균여대사가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을 바탕으로 지은 노래 11장이 실려 있으며, 「第八 譯歌現德分者」에는 균여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최행귀의 한역시가 실려 있다. 균여의 「願王歌」<sup>1)</sup>에 대한 연구는 균여 개인에 대한 연구<sup>2)</sup>에서 어학적, 문학적 측면에

\* 숙명여자대학교

1) 균여의 작품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善賢十願歌’나 ‘善賢十種願王歌’가 주로 사용되는데, 『균여전』에 나오는 문헌 명칭은 「願王歌」이므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師往見之 憫其苦 口授此願王歌 勸令常讀. 「第七 歌行化世分者」). 양희철, 정병현 등이 주장하는 바이며, 양희철은 「원왕가」를 1歌 11首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정병현도 「원왕가」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희철, 『고려향가연구』, 새문사, 1988, 9쪽; 정병현, 『한국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속대 출판국, 2003, 351쪽.)

대한 연구<sup>3)</sup>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나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미진한 편이다.

또 최행귀의 한역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한역시를 「보현십원가」를 번역·의역해 놓은, 「원왕가」의 종속적인 작품 정도로 인식하여 균여의 향가를 연구할 때 부수적으로 고찰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작품도 각 논의에 필요한 몇몇 작품만을 선별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한역시의 총체적 면모를 살펴볼 수 없다.<sup>4)</sup> 그러나 최행귀의 한역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왕가」를 단순히 번역·의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균여의 「원왕가」를 바탕으로 최행귀가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독창적으로 시화한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행귀의 한역시와 「원왕가」를 창작 동기와 목적, 작품 구조, 내용 진술 양상, 표현 방식면에서 대비해 봄으로써 한역시의 독창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 II. 「원왕가」와의 대비를 통해 본 한역시

### 1. 창작 동기와 목적

- 
- 2) 양계연, 「균여대사 연구」, 『논문집』 제4집, 중앙대학교, 1959.  
황폐강, 「균여 연구」, 『성봉김성배박사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77.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반도출판사, 1983.
  - 3) 이재선, 「신라 향가의 어법과 수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최래옥, 「균여의 보현십원가 연구」, 『국어교육』 제2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6.  
양희철, 『고려향가연구』, 새문사, 1988.  
최 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93.  
윤태현, 「〈보현십원가〉의 배경과 문학적 성격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5.  
임기중외,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 4) 최행귀의 한역시 전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진의 「최행귀의 역시 고찰」(『동경어문논집』 제1집,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국어국문학과, 1984)이 있다.

『균여전』, 「第七 歌行化世分者」에서 균여는 「원왕가」의 창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저 사뇌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데 쓰는 도구요, 원왕이라 하는 것은 보살이 수행하는 데 좃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얇은 데를 지나서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먼 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니, 세속의 이치에 기대지 않고는 저열한 바탕을 인도할 길이 없고, 비속한 언사에 의지하지 않고는 큰 인연을 드러낼 길이 없도다.<sup>5)</sup>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균여는 세속의 이치에 기대지 않고는 저열한 바탕을 인도할 길이 없고, 비속한 언사에 의지하지 않고는 큰 인연을 드러낼 길이 없기에 세인의 희락지구인 ‘사뇌’의 형식을 빌어 「원왕가」를 짓게 된 것이다.

이제 쉬 알 수 있는 비근한 일을 바탕으로 생각기 어려운 심원한 宗旨를 깨우치게 하고자 열 가지 큰 서원의 글에 의지하여 열 한 마리 거치른 노래의 구를 짓노니 못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몹시 부끄러운 일이나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는 부합될 것을 바라노라. 비록 지은이의 생각이 잘못되고 언사가 적당치 않아 성현의 오묘한 뜻에 알맞지 않더라도 서문을 쓰고 시귀를 짓는 것은 범속한 사람들의 선한 바탕을 일깨우고자 함이니 비웃으려고 염송하는 자라도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인연을 맺을 것이며, 훼방하려고 염송하는 자라도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sup>6)</sup>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 비근한 일을 바탕으로 불교의 심오한 宗旨를 깨

5) 혁련정, 『균여전』, 최철·안대회 역주, 새문사, 1986, 44쪽.  
夫詞腦者 世人戲樂之具 願王者 菩薩修行之樞 故得涉淺歸深 從近至源 不憑世道 無引劣根之由 非寄陋言 莫現普因之路  
이하 『균여전』과 한역시 번역은 이 책을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

6) 위의 책, 44쪽.  
今托易知之近事 還會難思之遠宗 依二五大願之文 課十一荒歌之句 慙極於衆人之眼 冀符於諸佛之心 雖意失言乖 不合聖賢之妙趣 而傳文作句 願生凡俗之善根 欲笑誦者 則結誦願之因 欲毀念者 則獲念願之益

우치게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열 한 마리 노래를 통하여 범속한 사람들의 선한 바탕을 일깨우고,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인연을 맺게 하고, 나아가 소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는 매우 효용론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第八 譯歌現德分者」에서 최행귀는 譯詩의 창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그러나 漢詩는 중국 글자로 엮어서 다섯 자, 일곱 자로 다듬고, 향가는 우리말로 배열해서 三句六名으로 다듬는다. 그 소리를 가지고 논한다면 參星과 商星이 동서로 나뉘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文理를 가지고 말한다면 창과 방패가 어느 것이 강하고 약한지 단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서로 맞서는 정도이다. …… 허나 한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공부하고 벼슬하는 선비들은 한시를 이해하여 읊조리는데, 저 중국의 박학하고 덕망 있는 선비들은 우리나라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7)</sup>

② 얼마 전 스님 친구분을 만나 우연히 현묘한 글을 보았는데 무단히 오묘한 노래를 따라 부르다보니 은연 중 그분이 내심(향가를 한시로 번역해 주었으면 하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는 듯 느껴졌다. 이에 따라 드디어 근원은 하나로 되 물줄기가 둘로 나뉘듯, 시와 노래가 본질은 같되 이름만 다르다는 것에 의거하여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번역해서 종이에 연이어 썼다.<sup>8)</sup>

향가인 「원왕가」를 한시로 옮긴 이유에 대해 그는 첫째 향가의 우수함이 한시를 능가할 만하지만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어 중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째 균여의 친구가 이를 한시로 번역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중국 사람들도

7) 위의 책, 58쪽.

然而詩構唐辭 磨琢於五言七字 歌排鄉語 切磋於三句六名 論聲則隔若參商 東西易辨 據理則敵如矛盾 強弱難分 …… 而所恨者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鄉語

8) 위의 책, 64쪽.

一昨 因逢道友 幸覽玄言 縱隨妙唱以無斷 潛恐高情之有待 憑托之一源兩派 詩歌之同體 異名 逐首各翻 間牋連寫

이 글의 뜻을 받아 불교에 귀의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라는 바는 동서에 두루 장애가 없이 楷書, 草書로 함께 퍼져서 敎界나 속세가 이와 인연을 맺어 보고 들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쉽없이 외워 먼저 보현보살의 흰 꼬끼리를 보고, 입에서 입으로 그침없이 읊어 그 뒤에 미륵의 龍華會를 만나기 바란다.<sup>9)</sup>

이와 같이 그는 이 한역시가 중국의 교계나 속세에 두루 퍼져 모든 사람들이 이를 쉽없이 외워 불교에 귀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한역시는 오로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어진 것은 아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려 할 때는 서문 외에는 알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선비들이 들을 때는 노래에 빠져서 쉽게 외우고는 그만이다. 그리하여 모두 반쪽의 이로 옴만 얻을 뿐 각각 온전한 공을 놓치고 있다.<sup>10)</sup>

이 글을 보면 최행귀가 향가를 한역하는 이유는 오로지 중국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향가를 한시로 한역하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쓰인 서문만을 알 뿐 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래에 빠져 쉽게 외우고 지나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균여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사녀를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데 쓰는 도구’로 인식하고, 이 방법으로는 목적인 바를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향가로는 ‘반쪽의 이로옴만을 얻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향가로는 목적인 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결국 향가가 불교의 포교 수단으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그의 문학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9) 위의 책, 64쪽.

所冀 遍東西而無導 眞草並行 向僧俗以有緣 見聞不絕 心心續念 先瞻象駕於普賢 口口連吟 後值龍華於慈氏

10) 위의 책, 62쪽.

而唐人見處 於序外以難詳 鄉土聞時 就歌中而易誦 皆沾半利 各漏全功

다.

그는 「원왕가」를 한시로 번역할 때 ‘시와 노래가 본질은 같되 이름만 다르다는 것(詩歌之同體異名)’에 의거했다고 하여 시와 노래의 본질이 같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그 기능면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일찍이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래에 빠져 쉽게 외우고 마는 형식적 폐단을 보완하고, 불교에 귀의하게 하려는 原意를 위해 그는 내용에 더 집착했는지도 모른다.<sup>11)</sup>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원왕가」에 의거하되, 전체적인 시상은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창출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여전』의 「第八 譯歌現德分者」에서 ‘薛翰林 強變於斯文 煩成鼠尾之所致者歟(설한림이 한문을 애써 바꾸려 했어도 결국 쥐꼬리를 만들어서 불러들인 장벽이 아니겠는가?)’라 하여 그 타당성을 옹호한 것도, 단순한 번역에 그침이 아니라 번역을 통한 창조성과 詩學性에의 접근을 꾀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sup>12)</sup>

## 2. 작품 구조

최행귀의 한역시에 대한 기존 견해는 균여의 향가를 번역 또는 의역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행귀의 한역시를 잘 살펴보면 균여의 「향가」를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시적으로 승화, 결합시킴으로써 문학적 독창성을 한껏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예경제불송」

以心爲筆畫空王    마음으로 붓을 삼아 부처님을 그리오며

11) 다음 장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최행귀의 한역시는 「원왕가」보다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12) 이진, 앞의 논문, 152쪽.

瞻拜唯應遍十方	우러러 절하오니 두루 시방 세계에 비취오시라!
一一塵塵諸佛國	티끌마다 부처님의 나라 뵈이고
重重利利衆尊堂	절마다 온갖 부처님 뵈시웁니다.
見聞自覺多生遠	보고 들을수록 부처로부터 떨어진 多生の 나를 만나오니
禮敬寧辭活劫長	永劫의 긴 시간일망정 어찌 禮敬하지 아니하리까?
身體語言兼意業	몸과 말과 그리고 생각의 三業을
總無疲厭此爲常	싫은 생각 하나 없이 닦으오리다.

이 작품의 ①-④행은 「예경제불가」의 ①-⑦구와, ⑦-⑧행은 「예경제불가」의 ⑨-⑩구와 표현과 뜻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예경제불송」의 가장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⑤-⑥행은 「예경제불가」의 ⑧구를 최행귀가 독자적으로 시화한 부분이다. ⑤-⑥행에서 그는 ‘보고 들을수록 부처로부터 떨어진 多生の 나를 만나오니’라는 구체적 이유를 들어 모두가 더욱 ‘예경’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⑤-⑥행은 이 시의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하며, ⑥행에는 바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禮敬’이란 단어가 직접 드러나 있다.

(2) 「칭찬여래송」

遍於佛界罄丹衷	부처님의 나라 가득하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一唱南無讚梵雄	한결같이 ‘나무’를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辯海庶生三寸抄	변론의 바다, 세 치 혀끝에서 끝없이 펼쳐지고
言泉希涌兩唇中	말의 샘 두 입술 사이에서 기쁘게 용솨음칩니다.
稱揚覺帝塵沙化	깨달음의 왕이여! 티끌 세계 교화시킨 것 칭송하웁고
頌詠鑿王刹土風	마음의 구원주여! 시방 국토 감화시킨 것 칭송하웁니다.
縱末談窮一毛德	끝내 한 터럭만큼의 덕도 마저 말하지 못한다 해도
此心直待盡虛空	이 마음 오직 허공 끝까지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의 ①-④행은 「칭찬여래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칭찬여래가」의 ⑨-⑩구와 유사하다. 그런데 여래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주된 뜻을

담고 있는 ⑤-⑥행은 최행귀가 「보현행원품」의 뜻을 보다 충실히 드러낸 독창적 표현이다. 그는 ⑤-⑥행에서 여래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근거로 ‘티끌세계를 교화시킨 것’과 ‘시방국토 감화시킨 것’을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더욱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⑤행에는 ‘稱揚’, ⑥행에는 ‘頌詠’이라는 주제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뜻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3) 「광수공양송」

至誠明照佛前燈	지성으로 부처님 전 등불을 밝히오니
願此香籠法界興	이 향불이 法界서도 피어오르기 원하옵니다.
香似妙峯雲縷帶	향은 오묘한 산봉우리에 구름 피어오르듯 하고
油如大海水洪澄	기름은 큰 바다에 물결이 출렁이듯 합니다.
攝生代苦心常切	중생을 건지고 그 괴로움 대신할수록 이 마음은 마냥 간절 해지고
利物修行力漸增	만물을 이롭게 하고 수행을 닦을수록 나의 힘은 점점 불어 갑니다.
餘供取齊斯法供	나머지 공양이 요 法供養에 맞서려 하고
直饒千萬總難勝	천만 가지 다 대어도 이길 것은 없으리이다.

이 작품의 ①-④행은 「광수공양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광수공양가」의 ⑨-⑩구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⑤-⑥행은 「광수공양가」에 서는 볼 수 없는 최행귀의 독자적인 표현이다. ⑤행은 「보현행원품」 <공양분>에 제시된 일곱 가지 범공양 중 (3)중생을 거두어 들이는 공양(攝受衆生供養)과 (4)중생들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代衆生苦供養)을 합하여 드러낸 것이고, ⑥행은 (2)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利益衆生供養)과 (5)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勤修善根供養)을 합한 것으로 그는 ‘널리 공양해야 하는’ 뜻을 「보현행원품」의 원의에 더욱 충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⑤행의 ‘攝生代苦’와 ⑥행의 ‘利物修行’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4) 「참회업장송」

自從無始劫初中	無始劫 과거로부터
三毒成來罪幾重	세 가지 毒을 지어 오니 그 죄 얼마나 무거운 건가?
若此惡緣元有相	이 악업의 인연에 본디 體相이 있다 하면
盡諸空界不能容	나를 받아들일 허공계는 하나도 없으리.
思量業障堪惆悵	업보를 생각하니 슬퍼지니
罄竭丹誠豈慵慵	은 정성 다할 뿐 어찌 태만하리오?
今願懺除持淨戒	이제 참회하노니 淨戒를 지켜
永離塵染似靑松	푸른 솔처럼 영원히 티끌세상 떠나려 하네.

이 작품의 ①-④행은 「참회업장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참회업장가」의 ⑨-⑩구와 내용이 유사하다. 이 시에서도 ⑤-⑥행은 최행귀의 독자적인 표현이며, 내용은 작품의 주제를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보현행원품」 <참회분>의 ‘모든 붓다와 보살 대중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이 다음에는 잘못된 업을 다시는 짓지 않고 늘 깨끗한 계행이 일으키는 온갖 공덕에 머물겠다’<sup>13)</sup>는 뜻을 시화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업보를 생각하면 슬퍼지니 온 정성을 다할 뿐’이라고 하여 단순히 참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정성을 다하여 태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올바른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역시 ⑤행에 이 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業障’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5) 「수희공덕송」

聖凡眞妄莫相分	聖이니 凡이니 眞이니 나누지 말라
同體元來普法門	실체는 같아 원래 큰 진리의 안에 포섭됩니다.
生外本無餘佛義	삶을 제쳐두고야 부처님의 뜻은 어디에도 없으니

13) 법성 연의, 『화엄경 보현행원품』, 큰수레, 1995, 25쪽.  
一切諸佛菩薩衆前 誠心懺悔 後不復造 恒住淨戒一切功德

我邊寧有別人論	내게 남과 다르다 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三三積集多功德	세 통찰력을 쌓으며 공덕은 늘어나
六趣修成少善根	여섯 세계가 닳은 대로 이루어지매 善根은 줄어 갑니다.
他造盡皆爲自造	남의 이롭이 모두 나의 이롭입니다.
總堪隨喜總堪尊	모두 따르고 기뻐하며 모두 다 존경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 작품의 ①-④행은 「수희공덕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수희공덕가」의 ⑨-⑩구와 그 표현과 뜻이 유사하다. ⑤-⑥행은 최행귀의 독자적 발상이며, 「보현행원품」 <수희분>에 나오는 六趣와 善根, 功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의 공덕을 따르며 같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그는 ‘三三을 쌓으며 공덕은 늘어나 여섯 세계가 닳은 대로 이루어지매 선근은 줄어가며, 남의 이롭이 모두 나의 이롭’이니 남의 공덕을 그대로 따르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행에 역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功德’이란 말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6) 「청전법륜송」

佛陀成道數難陳	불타의 도를 이룬 그 길은 말하기 어려우나
我願皆趨正覺因	저는 오직 正覺의 因을 따르기 원하옵니다.
甘露酒消煩惱熱	달콤한 이슬은 번뇌의 열을 시원하게 식히고
戒香熏滅罪愆塵	경계의 향은 죄악의 먼지를 살살이 없애 줍니다.
陪隨善友瞻慈室	좋은 벗은 되시고 따라 자애로운 가르침을 우리르고
勸請能人轉法輪	能人에겐 권하고 청하여 法輪을 굴리게 합니다.
雨寶遍沾沙界後	法寶의 비가 두루 사바 세계를 적신 뒤에
更於何處有迷人	어느 곳에 또 미혹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작품의 ①-④행은 「청전법륜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청전법륜가」의 ⑨-⑩구와 그 표현과 뜻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⑤-⑥행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보현십원가」에는 없는 독자적 표현이며,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⑥행에는 이 시의 주제어인 ‘請’, ‘轉法輪’이

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7) 「청불주세송」

極微塵數聖兼賢	극히 작은 티끌만큼 많은 성현의 부처님
於此浮生畢化緣	이 뜬구름 같은 生界에서 교화의 인연을 마치려 하네.
欲示泥恒歸寂滅	열반에 드시어 寂滅의 세계로 돌아가려 하시나
請經沙劫利人天	사겁토록 인간계와 천상계에 이익 주기를 청하옵니다.
談眞盛會猶堪戀	진리를 말하시는 성대한 모임이야 그리운 것이지마는
滯俗郡迷實可憐	세속에 매인 저 미혹한 중생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若見惠燈將隱沒	지혜의 등불이 꺼질 듯함을 보건대
盍傾丹懇乞淹延	어찌 온 정성 기울여 이 세상에 머물기를 빌지 아니 하겠 습니까?

이 작품의 ①-④행은 「청불주세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청불주세가」의 ⑨-⑩구와 역시 그 뜻과 표현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⑤-⑥행은 최행귀의 독자적인 문학적 발상이며,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즉 ‘세속에 매인 저 미혹한 중생이 참으로 가련’하니 부처님이 세상에 더 계셔야 한다고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8) 「상수불학송」

此娑婆界舍那心	이 사바세계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이 큰 보리의 마음을 내시어
不退修來迹可尋	물러서지 않고 닦아 온 그 자취를 찾아보리라.
皮紙骨毫兼血墨	살거죽 벗겨 종이 만들고 뼈 부숴 붓 만들어 피를 먹물 삼아 경전을 베끼셨고
國城宮殿及園林	나라와 궁전과 동산까지도 버리셨습니다.
菩提樹下成三點	보리수 아래에서 三點의 깨달음 이루시고는
衆會場中演一音	대중이 모인 도량에서 원만한 음성으로 연결하셨습니다.
如上妙因總隨學	이처럼 오묘한 수행을 모두 따르고 배워서
永令身出苦河深	영원토록 이몸을 깊고 깊은 괴로움의 바다에서 빼내오리다.

이 작품의 ①-②행은 「상수불학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상수불학가」의 ⑨-⑩구와 그 표현과 뜻이 유사하다. 나머지 작품들이 대개 ①-④행과 ⑦-⑧행, 총 6행에서 「원왕가」의 표현과 뜻을 유사하게 반영하고, ⑤-⑥행에서 최행귀의 독자적인 문학성이 드러나는데 비해 이 작품은 ③-④행에서도 최행귀가 독자적인 문학성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이 작품의 ③-⑥행은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듯하다.

저 사바세계의 비로자나여래는 처음 깨달음의 뜻을 내면서부터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여 살갓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으며 피를 뽑아 먹을 삼아 경전을 베껴 써서 수미산처럼 쌓았지만 법을 무겁게 여기므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하물며 왕의 자리나 성읍과 마을, 궁전과 동산의 숲, 그 밖의 온갖 가지고 있는 바이겠는가. 나아가서 붓다는 다른 하기 어려운 괴로운 행을 행하고 보리수 밑에서 큰 깨달음을 이루시며 갖가지 신통과 갖가지 변화를 보이시고 갖가지 붓다의 몸을 나누어 보이신다. 그리고 여러 대중의 모임에 함께 하였으니 때로는 온갖 큰 보살들이 모인 도량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성문 연각들이 모인 도량에 함께 하시며 때로는 전륜성왕이나 그들의 권속이 모인 도량에 함께 하시고 무사계급이나 바라문, 장자, 거사들이 모인 도량에 함께 하시며 나아가서는 하늘, 용 등 여덟 부류 옹호하는 무리들,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생류들이 모인 도량에 함께 하시었다.

비로자나여래는 이와 같은 갖가지 대중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어 원만한 음성을 큰 우뢰 소리 떨치듯 그 중생이 좋아함을 따라 설법하여 중생을 성숙시켜 주고서는 끝내 니르바나에 드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sup>14)</sup>

14) 위의 책, 29~30쪽.

娑婆世界 毘盧遮那如來 從初發心 精進不退 以不可說不可說身命 以為布施 剝皮為紙 析骨為筆 刺血為墨 書寫經典 積如須彌 為重法故 不惜身命 何況王位城邑聚落宮殿園林 一切所有 及餘種種難行苦行 乃至樹下 成大菩提 示種種神通 起種種變化 現種種佛身 處種種衆會 或處一切諸大菩薩衆會道場 或處聲聞及辟支佛衆會道場 或處轉輪聖王小王眷屬衆會道場 或處刹利及婆羅門長者居士衆會道場 乃至 或處天龍八部人非人等衆會道場 處於如是種種衆會 以圓滿音如大雷震 隨其樂欲 成熟衆生 乃至示現 入於涅槃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원왕가」에는 없는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그는 이 작품의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런 구체적 서술이 끝나는 바로 ⑦행에 ‘隨學’이라는 주제어가 표출되고 있다.

(9) 「항순중생송」

樹王偏向野中榮	보리수왕이 광야 한가운데 盛裝하고 있으니
欲利千般萬種生	천만 가지 生靈들을 이롭게 하려는 듯
花果本爲賢聖體	꽃과 열매는 성현의 본체를 나타내고
幹根元是俗凡精	줄기와 뿌리는 범속한 사람의 정기를 비유합니다.
慈波若洽靈根潤	자비의 물결이 靈을 가진 뿌리를 흠뻑 적셔 주듯이
覺路宜從行業成	깨달음의 길은 마땅히 行業을 좇아서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恒順遍教群品悅	항상 따르고 두루 가르친다면 모든 생령이 기뻐하리니
可知諸佛喜非輕	모든 부처님의 기쁨이 적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이 작품의 ①-④행은 「항순중생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항순중생가」의 ⑨-⑩구와 그 내용과 표현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도 나머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⑤-⑥행은 최행귀만의 독자적 발상이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항상 중생의 뜻에 따라야 하는 이유를 「보현행원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넓은 벌판 모래더미 가운데 큰 나무도 그 뿌리가 물을 얻어야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모두 우거지듯이 태어남과 죽음이 되풀이되는 넓은 삶의 벌판에 있는 깨달음의 나무(菩提樹王)도 이와 같아서 온갖 중생으로 나무 뿌리를 삼고 여러 붓다와 보살들로 꽃과 열매를 삼으니 크나큰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여러 붓다와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여러 보살이 크나큰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중생에 속

하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온갖 보살도 끝내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sup>15)</sup>

⑤-⑥행은 바로 이 부분을 시화한 것으로 주제를 드러내는데 매우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제에 관한 구체적 서술을 한 후 바로 이어지는 ⑦행에서는 주제를 대신할 만한 ‘恒順’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10) 「보개회향송」

從初至末所成功	처음부터 끝까지 이룬 공덕을
廻與含靈一切中	靈 가진 모두에게 돌려주리라.
舍覲得安離苦海	모든 사람이 안락을 누리 고해苦海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總斯消罪仰眞風	그 길은 죄를 씻고 참된 교화를 우러러보는 데 있도다.
同時共出煩塵域	모두 함께 번뇌의 세계에서 뛰어나와
異體咸歸法性宮	다른 만물까지도 모두 진리의 궁전에 들어가기를
我此至心廻向願	나의 이 지극한 廻向 바람은
盡於來際不應終	未來際가 다하도록 그치지 않으리.

이 작품의 ①-④행은 「보개회향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보개회향가」의 ⑨-⑩구와 그 뜻과 표현이 유사하다. ⑤-⑥행 역시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최행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부분으로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보현행원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중생이 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어서 모든 병의 괴로움이 없기를 원하며 중생이 나쁜 법을 행하려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지어가는

15) 위의 책, 32~33쪽.

譬如曠野沙磧之中 有大樹王 若根得水 枝葉華果 悉皆繁茂 生死曠野 菩提樹王 亦復如是 一切衆生 而爲樹根 諸佛菩薩 而爲華果 以大悲水 饒益衆生 則能成就諸佛菩薩智慧華果 何以故 若諸菩薩 以大悲水 饒益衆生 則能成就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是故 菩提屬於衆生 若無衆生 一切菩薩 終不能成無上正覺

좋은 업은 모두 빨리 이루게 하여 온갖 나쁜 길로 들어가는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 천상의 니르바나에 들게하는 바른 길은 열어 보인다.

또한 만약 여러 중생이 나쁜 업을 쌓아 모음으로써 불러들이는 온갖 극심한 괴로움의 과보를 내가 다 대신 받아 그 중생이 모두 해탈을 얻어 끝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한다.<sup>16)</sup>

‘보개회향’의 내용은 모든 부처님께 예경함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중생들이 뜻을 늘 따름으로 지은 공덕을 모두 다 온 법계, 허공계의 온갖 중생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모든 중생이 번뇌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진리의 길에 들어서 해탈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⑤-⑥행은 이 작품의 주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제에 관한 구체적 진술 후 바로 이어지는 ⑦행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廻向’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11) 「총결무진송」

盡衆生界以爲期	중생계가 마침으로 기약을 삼긴마는
生界無窮志豈移	생계가 가이 없으니 내 뜻이 변하리이까?
師意要驚迷子夢	스승의 마음은 미혹한 자의 꿈을 깨치는 데 있나니
法歌能代願王詞	법의 노래로 願王의 시를 대신할 수 있으리.
將除妄境須吟誦	迷妄의 경계를 떠나려 하면 이를 외고
欲返眞遠莫厭疲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면 싫어하는 마음 없어야 하리라.
相續一念無間斷	한마음으로 쉬 없이 윈다 하면
大堪隨學普賢慈	보현의 자비를 따라 배울 수 있으리.

이 작품의 ①-④행은 「총결무진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총결무진

16) 위의 책, 34쪽.  
願令衆生 常得安樂 無諸病苦 欲行惡法 皆悉不成 所修善業 皆速成就 關閉一切諸惡趣門 開示人天涅槃正路 若諸衆生 因其積集諸惡業故 所感一切極重苦果 我皆代受 令彼衆生 悉得解脫 究竟成就無上菩提

가」의 ⑨-⑩구와 역시 그 뜻과 표현이 유사하다. 또 ⑤-⑥행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최행귀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며,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보현행원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위대한 행원을 듣고 의심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마땅히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서는 읽고, 읽고서는 외우며, 외우고서는 지니고 나아가서는 베껴 써서 널리 다른 이를 위해 이야기해 주어라. 그렇게 하면 이 여러 사람들은 한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행원을 모두 다 이루게 되며 얻은바 복의 무더기는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번뇌의 크나큰 괴로움의 바다에 헤매는 중생을 건져내 그들을 벗어나게 하여 모두 아미타불의 참된 기쁨의 세계에 가서 나게 할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이 ⑤-⑥행은 모든 중생들은 항상 이를 외고 싫어하는 마음을 없이하면 곧 번뇌의 세계를 지나 해탈의 세계에 이를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⑦행에 ‘無間斷’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그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행귀 한역시의 ①-④행은 「원왕가」의 ①-④구와, ⑦-⑧행은 「원왕가」의 ⑨-⑩구와 그 표현과 뜻의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행귀는 「원왕가」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몇몇 어휘나 표현을 차용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보현행원품」의 뜻을 전달하는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행귀의 문학적 독창성이 돋보이는 ⑤-⑥행은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역시 전편에 걸쳐 각 시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뒷받침하여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17) 위의 책, 37~38쪽.

是故 汝等 聞此願王 莫生疑念 應當諦受 受已能讀 讀已能誦 誦已能持 乃至書寫 廣爲人說 是諸人等 於一念中 所有行願 皆得成就 所獲福聚 無量無邊 能於煩惱大苦海中 拔濟衆生 令其出離 皆得往生阿彌陀佛極樂世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⑤-⑥행의 내용은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요약하여 詩化한 것 같은 작품(「광수공양송」, 「참회업장송」, 「상수불학송」, 「항순중생송」, 「보개회향송」, 「총결무진송」)이 있는가 하면, 주제에 관한 구체적 서술을 곁들여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예경제불송」, 「칭찬여래송」, 「수회공덕송」, 「칭진법륜송」, 「칭불주세송」)이 있는데, 이는 모두 주제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⑤-⑥행에는 많은 작품에서 주제어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먼저 「예경제불송」에서는 ‘禮敬’, 「칭찬여래송」에서는 ‘稱揚’과 ‘誦詠’, 「광수공양송」에서는 ‘攝生代苦’·‘利物修行’, 「참회업장송」에서는 ‘業障’, 「수회공덕송」에서는 ‘功德’, 「칭진법륜송」에서는 ‘講’과 ‘轉法輪’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여 주제를 드러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에 관한 구체적 서술이 길어지는 몇몇 작품에서는 주제에 관한 구체적 서술 후 바로 이어지는 제⑦행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다. 즉 각 시의 제⑦행에 「상수불학송」에서는 ‘隨學’, 「항순중생송」에서는 ‘恒順’, 「보개회향송」에서는 ‘廻向’, 「총결무진송」에서는 ‘無間斷’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⑤-⑥행에는 주제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거나, ⑤-⑥행에 「보현행원품」의 내용이 압축·제시된 작품들에서는 바로 뒤인 제⑦행에 그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볼 때, 최행귀는 형식면에서 독자적으로 구조를 재창조했다고 할 수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보현행원품」의 뜻을 더욱 충실히 표현,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3. 내용 진술 양상

「원왕가」는 「보현행원품」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면에서 많은 것을 변조시켰는데 내용상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현행원품」 契經의 내용을 「원왕가」의 내용으로 바꾸면서 願의 대상, 誓願者의 위치, 誓願 行爲 등에서 그 정도를 하향조절하고 있다<sup>18)</sup>는 것이다.

먼저, 願의 대상에서는 「보현행원품」의 <隨學分>에서는 부처를 따라 배우고자 하는 대상으로, 비로자나여래가 사바세계에서 정진한 종종 난행고행과 각종 佛會道場에 거하심을 들고 있는데<sup>19)</sup> 비해, 「상수불학가」는, ‘우리 부터 니건 누리 닷ᄃ려샤론 難行苦行ᄃ 願을 나는 頓部ᄃ 조추리잇다’에서와 같이, 난행고행만을 원의 대상으로 하고, 衆會道場에 거함을 원의 대상에서 빼는 하향조절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역시를 보면 이는 「보현행원품」의 내용에 충실하게 다시 상향조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수불학송」에서는 부처의 난행고행의 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보리수 아래에서 三點의 깨달음 이루시고는 / 대중이 모인 도량에서 원만한 음성으로 연결하셨습니다(菩提樹下成三點 衆會場中演一音)’라고 하여 부처가 중회도량에 거한 것을 원의 대상에 넣음으로써 願의 대상을 다시 상향조절하고 있다.

願의 대상을 하향조절하기는 「수희공덕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현행원품」의 <수희분>에서는 매우 다양한 공덕의 대상을 수희하고자 한다.

모든 세계의 가는 티끌 수처럼 한량없는 붓다계서는 처음 깨달음의 바른 뜻을 내면서부터 ……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끝내 니르바나에 드시어 널리 사리를 대중에게 나누어 주신다.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이란 바로 붓다의 이와 같은 선근을 내가 다 빠짐없이 따라 기뻐함을 말한다.

다시 온누리 일체 세계 가운데 있는 여섯 갈래(六趣),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는 여러 종류의 삶들(四生)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한 티끌이라도 내가 다 따라 기뻐함을 말하며 온누리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는 모든 성문과 연각, 아

18) 양희철, 앞의 책, 53쪽.

19) 법성연의, 앞의 책, 29~30쪽.

이 사바세계에서 비로자나여래가 좇은 초발심으로 정진하며 불퇴하시고, 설명할 수 없이 많은 몸과 목숨으로 보호하시되, …… 및 그 나머지 종종 난행과 고행 내지 나무 아래서 대보리를 일우샤 종종 신통을 보이시며 종종 변화를 일으키며 종종 佛身을 나타내시고 종종 佛會에 거하시되, 혹은 일체의 모든 대보살의 중회도량에 거하시고,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중회도량에 거하시며 …… 이와 같은 一切를 나는 모두 따라 배우리라. (娑婆世界 毘盧遮那如來 從初發心 精進不退 以不可說不可說身命 以爲布施 …… 及餘種種難行苦行 乃至樹下 成大菩提 示種種神通 起種種變化 現種種佛身 處種種衆會 或處一切諸大菩薩衆會道場 或處聲聞及 辟支佛衆會道場 …… 如是一切 我皆隨學)

직 배워가는 이(有學)와 배움을 완성하여 더 배울 것이 없는 이(無學)들이 갖고 있는 공덕을 내가 다 따라 기뻐함을 말한다.

또한 모든 보살이 행하기 어려운 괴로운 행들을 한량없이 실천하여 위 없는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는 광대한 공덕을 내가 다 따라 기뻐함을 말한다.<sup>20)</sup>

이렇게 「보현행원품」에서는 諸佛如來와 一切菩薩의 無上菩提와 無上正等菩提 등을 수회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회공덕가」에서는 ‘어느 人의 善들사 / 안달 깃홀 두오릿고’라고 하여 남의 善만을 願의 대상으로 하는 하향 조절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역시는 남이 이룬 매우 다양한 공덕을 단순히 ‘선업’만이 아닌 ‘남의 이룸이 모두 나의 이룸입니다(他造盡皆爲自造)’라고 하여 원의 대상을 ‘이루어진 모든 공덕’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즉 여기서는 一切菩薩의 無上正等菩提와 廣大功德을 원의 대상으로 하여 願의 대상을 다시 상향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誓願者의 위치를 볼 때, 「보현행원품」의 서원자인 보현보살은 득도의 경지에서 세속을 완전히 떠나고 있는 경지에 있는데 반해 「보현십원가」의 서원자는 세속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현행원품」의 <참회분>에서는 ‘모든 부처와 보살 대중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이 다음에는 잘못된 업을 다시는 짓지 않고 늘 깨끗한 계행이 일으키는 온갖 공덕에 머물겠다.’<sup>21)</sup>고 하여 업장의 완전한 제거를 다짐한다. 이에 비해 「참회업장가」에서는 ‘오늘날 頓入懺悔 / 十方八부터 알곡사서 / 아오 衆生界盡我懺盡 / 來際 기러 造物捨저’ 라고 하여 단순히 업장을 참회하는 세속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20) 위의 책, 26~27쪽.

極微塵數 諸佛如來 從初發心 …… 成就諸佛無上菩提 及般涅槃 分布舍利 所有善根 我皆隨喜 及彼十方一切世界 六趣四生一切種類 所有功德 乃至一塵 我皆隨喜 十方三世一切聲聞 及 辟支佛 有學 無學 所有功德 我皆隨喜 一切菩薩 所修無量難行苦行 志求 無上正等菩提 廣大功德 我皆隨喜

21) 위의 책, 25쪽.

一切諸佛菩薩衆前 誠心懺悔 後不復造 恒住淨戒一切功德

그러나 이 부분을 한역시에서는 ‘이제 참회하노니 淨界를 지켜 / 푸른 솔처럼 영원히 티끌 세상 떠나려 하네(今願懺除持淨戒 永離塵染似青松)’라고 하여 단순히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계를 지켜 영원히 티끌 세상을 떠나겠다는 업장의 완전한 제거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서원자의 위치와 같은 것으로, 한역시에서는 서원자의 위치가 다시 상향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 스스로 辯才天女 이상의 舌根을 내어 여래를 칭찬하고자 한다. 이는 적어도 세속을 떠난 보현보살의 득도의 위치를 말해준다.

그 한량없는 붓다가 계신 곳에는 많은 보살이 모여 붓다를 둘러싸고 있으니 나는 마땅히 깊고 뛰어난 지혜와 눈앞의 것을 보듯 하는 밝은 앎으로 한량없는 붓다와 보살대중을 대한다. 그리하여 날날의 대중에게 말재주가 뛰어난 하늘여인(辯才天女)보다 더 훌륭하고 미묘한 혀를 내서 날날의 혀로 다함없는 소리의 바다를 일으키고 날날의 소리로 온갖 언어의 바다를 내서 모든 여래의 한량없는 공덕바다를 드높여 찬탄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찬탄이 미래세가 다하도록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며 온누리 그 어디에라도 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sup>22)</sup>

이에 비해 「칭찬여래가」에서는 ‘塵塵虛物人 괴시리술본 / 功德人身을 對 愾傭디 / 𡇗업는 德바달홀 / 西王들루 기리솅져’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들로 이를 칭양하고자 한다. 이런 한계의 노출은 서원자가 매우 세속적인 위치에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칭찬여래송」에서는

遍於佛界罄丹衷    부처님의 나라 가득하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一唱南無讚梵雄    한결같이 ‘나무’를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22) 위의 책, 21~22쪽.

一一佛所 皆有菩薩海會圍遶 我當悉以甚深勝解 現前知見 各以出過辯才天女微妙舌根  
一一舌根 出無盡音聲海 一一音聲 出一切言辭海 稱揚讚歎 一切如來諸功德海 窮未來際 相續不斷 盡於法界 無不周遍

辯海庶生三寸抄 변론의 바다, 세 치 혀끝에서 끝없이 펼쳐지고  
 言泉希涌兩唇中 말의 샘 두 입술 사이에서 기쁘게 솟아오릅니다.

라고 하여 서원자가 부처님을 직접 찬양하고, 그의 세 치 혀끝에서 변론의 바다가 펼쳐진다. 그리하여 그는 부처님을 ‘깨달음의 왕’과 ‘마음의 구원주’로 칭양하고, 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칭송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한역시에서는 서원자의 위치가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위치로 다시 상향조절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誓願 行爲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향조절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보현보살이 그의 서원을 수행하려는 기간은, 허공계·법계·중생계 등이 다할 때까지이다.<sup>23)</sup> 이에 비해 「원왕가」에서는 ‘므스민 부드루 / 그리술본 부터前에 / 저 누은 모몬 / 法界뎨도록 니르가라’(「예경제불가」), ‘아으 衆生界盡我懺盡’(「참회업장가」)라고 하여 허공계를 뺀 법계·중생계 등이 다할 때까지만을 서원 수행의 기간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허공계 다할 때’까지를 빼고 법계·중생계 등으로 기간을 설정한 것은 분명 시간의 하향조절이다.

그러나 한역시에서는 다시 ‘허공계 다할 때까지’를 수행 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칭찬여래송」에서 그는 ‘끝내 한 터럭만큼의 덕도 마저 말하지 못한다 해도 / 이 마음 오직 허공 끝까지 다하기를 바랍니다(縱未談窮一毛德 此心直待盡虛空)’라고 하여 서원 수행의 기간을 다시 ‘허공계 다할 때까

23) 「보현행원품」 중 <總結分>을 제외한 각 편의 후반부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서원 행위의 시간적인 면을 볼 수 있다.  
 ① 이처럼 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며 중생의 번뇌가 다한다면 나의 OO도 다하겠지만 허공계와 나아가서는 중생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OO함도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OO하는 일은 생각 생각 서로 이어져 사이가 없고 끊어짐이 없으며 몸과 말과 뜻의 업에 결코 피로하거나 싫증냄이 없다.<禮敬分>, <讚揚分>, <供養分>, <懺悔分>  
 ② 이처럼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한다 해도 나의 이와 같은 OO은 다할 수 없다. 이러한 OO은 생각 생각 서로 이어져 사이가 없으며 끊어짐이 없으며 몸과 말과 뜻의 업에 피로하거나 싫증냄이 없다.<隨喜分>, <請法分>, <住世分>, <隨學分>, <隨順分>, <廻向分>

지'로 연장, 상향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역시에서는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원왕가」로 바꾸면서 하향 조절한 부분을 「보현행원품」의 내용과 같게 다시 상향조절함으로써,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 4. 표현 방식

한역시는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원왕가」와는 매우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작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경제불송」에서 그는 주제인 '禮敬'을 드러내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예경제불가」에서는 그냥 단순히 '九世 다아 禮호 숲저'라고 한 부분을 그는 '보고 들을수록 부처로부터 떨어진 多生의 나를 만나오니(見聞自覺多生遠)라는 원인구를 삼입하여 '永劫의 긴시간일망정 어찌 禮敬하지 아니하리까?(禮敬寧辭活劫長)'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칭찬여래송」에서도 그는 여래를 칭송하고 찬양하는데 있어 「칭찬여래가」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칭찬여래가」에서는 '塵塵虛物스 피시 리슬본 / 功德스身을 對호 숲디 / 𠄎업는 德바들홀 / 西王들루 기리숲저'라고 한 부분을 그는 '깨달음의 왕이여! 티끌 세계 교화시킨 것 칭송하옵고 / 마음의 구원주여! 시방 국토 감화시킨 것 칭송하옵니다(稱揚覺帝塵沙化 / 頌詠鑿王刹土風)'라고 하여 칭송하는 대상을 '깨달음의 왕'과 '마음의 구원주'로, 칭송하는 내용을 '티끌세계 교화시킨 것'과 '시방국토 감화시킨 것'으로 아주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佛菩薩은 '帝'와 '王'이라는 유교적 왕조 국가에서 군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환되어 있다. 신앙과 종교상에서만 유용한 보살의 개념을 환치할 적당한 용어가 없는 탓도 있겠지만, 이 점이 바로 불가의 승려와 유가의 지식층이 지향하는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24)</sup>

24) 임종욱,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 임기중외,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광수공양송」에서는 단순히 ‘보저 자비며 / 佛前燈을 고티란디’(「광수공양가」)라는 행위에 ‘지성으로’란 수식어구를 삽입하여 등공양하는 행위를 보다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광수공양가」에서는 단순히 ‘법공양’이라고 표현한 것을 ‘중생을 건지고 그 괴로움 대신할수록 이 마음은 마냥 간절해지고(攝生代苦心常切)’, ‘만물을 이롭게 하고 수행을 닦을수록 나의 힘은 점점 불어갑니다(利物修行力漸增)’라고 하여 ‘법공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만물을 이롭게 하고 수행을 닦을수록 나의 힘은 점점 불어갑니다(利物修行力漸增)’라는 구절은 「보현행원품」에 제시된 일곱 가지 법공양 중 (3)衆生을 거두어 들이는 공양(攝受衆生供養)과 (4)衆生들의 괴로움을 대신 받은 공양(代衆生苦供養)을 합하여 드러낸 것이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수행을 닦을수록 나의 힘은 점점 불어갑니다(利物修行力漸增)’는 구절은 (2)衆生을 이롭게 하는 공양(利益衆生供養)과 (5)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勤修善根供養)을 합한 것으로 제재인 공양의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회업장송」에서 그는 자신의 願行을 단순히 참회하는 행위로 끝내지 않고 ‘온 정성 다할 뿐 어찌 태만하리오?(罄竭丹誠豈愒慵)’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참회의 방법과 방향을 구체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든 붓다와 보살대중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이 다음에는 잘못된 업을 다시는 짓지 않고 늘 깨끗한 계행이 일으키는 온갖 공덕에 머물겠다’<sup>25)</sup>는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詩化한 것이다.

「수회공덕송」에서도 그는 ‘수회공덕’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삼명을 쌓으매 공덕은 늘어가나, 여섯 세계가 닦은 대로 이루어지매 善根은 줄어간다(三明積集多功德 六趣修成少善根)’는 상황을 구체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남의 이름이 모두 나의 이름이니 모두 따르고 기뻐하며 존경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8, 349쪽.

25) 법성연의, 위의 책, 25쪽.

一切諸佛菩薩衆前 誠心懺悔 後不復造 恒住淨戒一切功德

「칭전법륜송」에서는 ‘법륜 굴리기를 칭하는’ 행위를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법륜 굴려주기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벗을 되시고 따라 자애로운 가르침을 우러르며(陪隨善友瞻慈室)’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能人에게 법륜 굴리기를 칭한다는 것이다.

「칭불주세송」에서도 부처님이 세상에 더 오래 계시기를 빌되, 부처님이 세상에 더 계셔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세속에 매인 저 미혹한 중생이 참으로 가련하고, 지혜의 등불이 꺼질 듯하여(滯俗郡迷實可憐 若見惠燈將隱沒)’ 온 정성을 기울여 부처님의 住世를 빈다는 것이다.

「상수불학송」은 한역시 중에서 주제에 관한 서술을 가장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상수불학가」에서는 단순히 ‘우리 부테 / 니건 누리 닷 ㄴ려샤론 / 難行苦行入願을’이라고 한 부분을 그는 「보현행원품」의 내용에 충실하게 ‘살거죽 벗겨 종이 만들고 뼈 부쉬 붓 만들어 피를 먹물 삼아 경전을 베끼셨고 / 나라와 궁전과 동산까지도 버리셨습니다(皮紙骨毫兼血墨 國城宮殿及園林)’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각종 衆會道場에 거한 부처의 행적도 2행에 걸쳐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항순중생송」에서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그는 ‘자비의 물결이 靈을 가진 뿌리를 흠뻑 적셔 주듯이 / 깨달음의 길은 마땅히 行業을 좇아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慈波若洽靈根潤 覺路宜從行業成)’라고 하여 恒順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개회향송」에서도 그는 ‘廻向’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회향하려는 이유에 대해 그는 ‘모두 함께 번뇌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 다른 만물까지도 모두 진리의 궁전에 들어가기를(同時共出煩塵域 異體咸歸法性宮)’ 바라기 때문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총결무진송」에서는 ‘無盡’해야 하는 이유를 ‘迷妄의 경계를 떠나려 하는’ 것으로, ‘無盡’하는 자세는 ‘싫어하는 마음 없어야’ 한다고 매우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행귀의 한역시는 표현 방식에서 매우 구체적이며, 서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 III. 맺음말

최행귀의 한역시는 균여의 향가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왕가」의 일부를 차용하여 「보현행원품」을 독자적으로 시화한 문학 작품이라는 문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원왕가」와의 대비를 통해 살펴본 한역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작 동기에서 최행귀는 향가를 중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며, 균여의 친구가 이를 한시로 번역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향가가 ‘우리나라 선비들이 들을 때는 노래에 빠져서 쉽게 외우고 마는’ 폐단에 빠져 온전한 공을 놓치는 것을 우려하는 또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역시는 모든 사람을 불교에 귀의시키려는 일차적 목적 외에 한시라는 형식으로 향가의 폐단을 보완하여, 본래의 뜻을 달성하려는 이차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구조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①-④행, ⑦-⑧행은 「원왕가」의 뜻과 유사하나 그 표현에서는 독창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각 시의 ⑤-⑥행은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시화하여, 그 뜻을 더욱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또 이 부분에 주제어나 주제 관련 용어를 제시하여 문학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도 한역시의 문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내용 진술 양상을 보면 「원왕가」가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願의 대상, 서원자의 위치, 서원 행위 등에서 하향조절해 놓은 것을 한역시에서는 다시 상향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역시 창작의 근거가 「원왕가」라기보다는 「보현행원품」이라는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현 방식에서는 「원왕가」보다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뜻을 더욱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최행귀의 한역시는 「원왕가」와는 매우 다른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작품 창작의 근거를 「보현행원품」에 더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한역시는 균여의 「원왕가」보다 「보현행원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독자적으로 시화한 작품이라는 데서 그 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법성 연의, 『화엄경 보현행원품』, 큰수레, 1995.  
양희철, 『고려향가연구』, 새문사, 1988.  
윤태현, 「<보현십원가>의 배경과 문학적 성격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5.  
임기중외,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이 진, 「최행귀의 역시 고찰」, 『동경어문논집』 제1집,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국  
어국문학과, 1984.  
정병현, 『한국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숙대 출판국, 2003.  
최태욱, 「균여의 보현십원가 연구」, 『국어교육』 제2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6.  
혁련정, 『균여전』, 최철·안대회 역주, 새문사, 1986.

<투고일 : 2005.6.30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Abstract

## A Study on Choi, Hang-gui's Translation in Classical Chinese Poetry

Cho, Yeon-sook

Choi, Hang-gui's translation in classical Chinese poetry are based on Kyun-yu's Hyang-ga, however, it is not translated literally, it rather borrowed a part from 'Wonwang-ga'. Choi's work has significance that it is a uniquely poeticized literary work of 'Bohyunhangwonpoom'.

Translation in classical Chinese poetry's originality can be found in motive and purpose of creation, work structure, format of contents, and style of expression. Choi tried to cease corrupt practices of Hyang-ga and he presented his creativity in line 5,6 of each poem. In addition, he adjusted desired object, lecture, and position of the lecturer to higher standards according to 'Boyunhangwonpoom.' As a whole, his style of expression was specific descriptive.

Therefore, Choi Hang-gui's translation in classical Chinese poetry deserves more attention than Kyun-Yu's Wonwang-ga and it should be awakened to its new significance of being uniquely poeticized work.

**Key words : creativity, uniquely poeticized work, purpose of creation, work structure, style of expression**